

# ‘또대명’ 속 김두관 도전장...민주당 당권 경쟁 본격화

### 김 전 의원, 광주 5·18민주묘지 방문 “1% 반대 목소리 대변” 이재명 전 대표 오늘 출마회견...“실종된 대한민국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당 대표에 도전장을 던진 데 이어 이재명 전 대표도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어 민주당 당권 경쟁이 ‘양자대결’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 전 의원의 출마로 사실상 1인 체제로 흘러갈 민주당의 차기 당권 향배는 일단 경쟁 구도가 갖춰지게 됐다.

김두관 전 의원은 9일 8·18 전당대회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1%의 반대 목소리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변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다. 차기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많은 민주·진보·개혁진영과 연대하고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8월 18일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대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선거다”며 “광주·전남 시민들께서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출마는 눈에 뵈히 보이는 민주당의 붕괴를 온몸으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1인 독주를 막지 못하면 민주당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여소야대 정국의 거대 1당으로서 책임을 거슬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웠다”면서 “민주당의 생명은 다양성이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토론은 언급감심”이라며 “1인의 지시에 일벌종대로 돌격하는 전체주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화해와 통합, 연대와 연합을 지향했던 김대중 정신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던 노무현 정신도 민주당에서는 흔적도 없이 실종된 지 오래다”며 “지금 이 오염원을 제거하고 소독·치유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붕괴는 명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 전 의원은 “이번 전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해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느냐, 아니면 정권교체에 실패해 민주당과 대한민국이 모두 회복 불가의 타격을 입느냐의 갈림길”이라고 진단했다.

또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횡포를 막고 남북 평화 체제 전환, 무너지는 국가 경제 복구, 민생 회복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당의 다양성과 분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전 대표도 10일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실에서 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이 전 대표 측이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출마 선언에서 실종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국가 위기 극복, 새로운 경제 성장을 통한 민생 회복을 구현할 정책 대안도 발표한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대표직 연임 도전 결심을 굳히고, 지난달 24일 대표직을 사퇴했다.

김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는 하겠지만, 김 전 의원이 이 전 대표의 연임 가도를 저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대선 후보와 당 대표를 거치면서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재편된 지 오래인데다, 총선 압승으로 의원들은 물론 당원 전반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장악력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기록한 득표율(77.77%)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이미 ‘또대명’ (또 대표는 이재명)이 굳어진 듯한 양상이다.

이처럼 ‘이재명 일국 체제’가 공고화한 상황에서 김 전 의원의 당권 도전이 유의미한 득표율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민주당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형배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

### “윤석열 독재와 싸울 전사 필요” 호남 후보 이성운 의원과 2명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불출마

대표적인 호남의 ‘친 이재명계’로 꼽히는 민형배(광주 광산) 국회의원이 9일 8·1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출마가 점쳐졌던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날 불출마 입장을 밝히면서 호남 최고위원 후보는 민 의원과 이성운(전주) 의원 2명으로 압축됐다.

그동안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호남지역 후보들이 잇따라 고배를 마시는 등 호남 정치력 약화 지적에 대해 두 후보가 결집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민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 독재와 전면전을 펼쳐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전방에서 싸울 전사가 필요하다. 제가 나서겠다”며 최고위원에 출마표를 던졌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고속도로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있고, ‘정치 검찰’이 음주운전 중인 윤석열을 호위한다”며 “입법으로 멈춰 세워보려 해도 무조건적인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힌다. 윤석열 검찰 독재를 먼저 퇴출시켜야 경제든, 민생이든, 온전히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 독재를 무너뜨리지 못할 배에야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는 각오로, 목숨을 걸어야 이길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임하겠다”며 “가장 먼저 맨 앞에서 싸우고 가장 마지막까지 싸워 기필코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민 의원이 공식적으로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힌 이날 출마가 예상됐던 박병규 청장은 불출마 입장을 내놨다.

박 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광산구에서 추진 중인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 등 경제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속도를 내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과의 활발한 연대와 교류·협력으로 일자리 개혁을 확산시키겠다”며 “금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 당선을 위해서도 힘껏 돕겠다”며 불출마를 시사했다.

박 청장은 “불출마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고위원 출마를 앞세워 출마기념회 흥행과 이름값 올리기만 한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기도 있다.”

박 청장의 불출마로 호남에서는 민형배 의원과 이성운 의원이 최고위원에 도전하게 됐다.

앞서 이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뒤 지난 7일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30년 동기 윤석열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최고위원으로 민주당 지도부에

들어가 제대로 맞장을 뜨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검찰 개혁을 완수해 검찰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저에게 부여된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지역에서의 최고위원 출마는 호남 정치 복원 등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그동안 최고위원에 출마한 호남 의원들이 잇따라 고배를 마셨다. 민 의원과 이 의원이 출마할 경우 호남 지지세가 분산될 가능성이 커 두 의원의 단일화 여부 등도 관심사다.

한편 해남 출신인 최태도 경기안양시장도 이날 광주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최 시장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자치분권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당원 주권을 강화하고 정당을 혁신하는 일 맨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이유에 대해 “광주는 민주당에서 가장 큰 자산이자 정치적 부채가 있는 곳”이라며 “5·18 당시 광주인근 군부대에서 근무했지만 5·18이 일어난 줄도 몰랐고,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 송고한 정신에 대해 표현을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부끄럽다는 짐을 평생 지고 살아왔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또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고 가지이자 정신인데 호남 출신이 지도부에 없었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자치분권과 더불어 호남을 대표할 최고위원 한 명쯤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尹, 나토 회의서 10여개 국가와 양자회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0~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일본을 포함해 10개국 이상 국가 정상과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9일(현지시간)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DC에 앞서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하와이에 마련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국 전 양자회담은 5개 이상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10개 이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후보로는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핀란드, 일본, 노르웨이, 영국 정도가 매우 적극적으로 진전된 상태다”라며 “다

만, 마지막 성사 단계까지 유동성이 있어서 이 중에서 빠지거나 나중에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 회담이 성사될 경우 최근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한 북대서양 조약체결과 북한의 지속적 군사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마지막 회담은 지난 5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졌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의 참석차 방한했다.

윤 대통령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양자 회담도 당초 10일에서 11일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Sky is unlimited

취업성공!  
탁월한 선택!

## 항공 특성화 대학 초당대학교

www.cdu.ac.kr




항공이론학

- 항공운항학과
- 항공정비학과
- 항공모빌리티학과
- 항공관광서비스학과

간호이론학

- 간호학과
- 치위생학과

제1언어이론학

- 스포츠경영지도학과
- 뷰티디자인학과
- 호텔조리베이커리학과
- 군사학과
- 사회복지상담학과
- 소방행정학과
- 의약관리학과

제2언어이론학

- 글로벌비즈니스학과
- 글로벌신재생에너지학과
- 글로벌실버케어학과
- 글로벌조선학과
- 글로벌화학기공학과
- 국제학과

다문화 전문 인재 양성 대학

UCC 전문대학